

주간 한우정보

제20호

22.1.10.

국내 소식

- 코로나19 이후 한우고기 소비 변화

해외 소식

- 일본, 10대 농업기술에 온실가스 반감 사료 선정
- 일본 와규,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하락
- 세계 식량, 기상이상과 탈 탄소로 10년 만에 고가

전 국 한 우 협 회
한 우 정 책 연 구 소

코로나19 이후 한우고기 소비 변화

□ 농촌진흥청은 12월 6일, ‘코로나19 이후 축산물 소비 환경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 본고에서는 한우고기 및 소고기를 중심으로 정리

○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69세 성인남녀 1,500명(주부 및 1인 가구)이며, 조사기간은 21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 조사방법은 정형화된 설문지에 의한 인터넷 조사 실시

○ 주요 조사항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대 축종의 취식빈도, 소비량 변화, 소비 방법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육류 구입 장소 변화 여부 등

□ 소고기 취식 빈도 조사결과, 주 1회 이상 소고기를 먹는 가구 비율은 44.9%로 나타남

○ 이 중에서 거의 매일 먹는 가구비율은 3.5%, 주 3회 이상 8.3%, 주 1~2회 33.1%였음

○ 그리고 월 1~2회 38.3%, 3개월 1회 또는 그 이하는 16.8%로 나타남

[소고기 취식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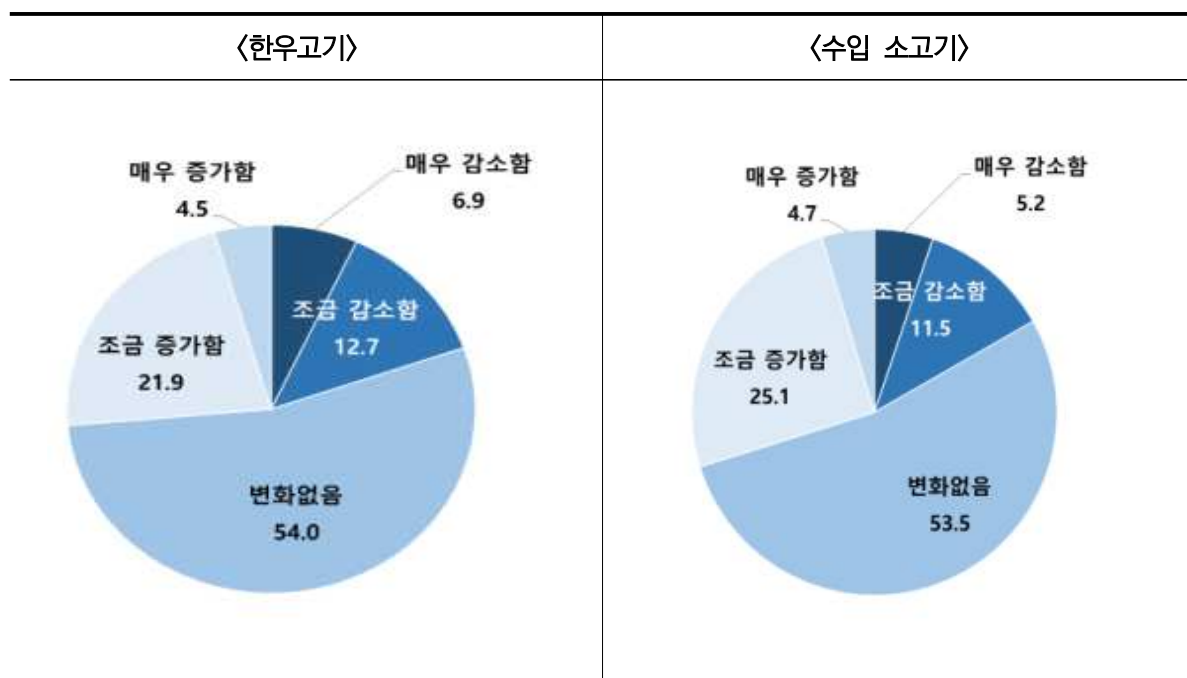
자료 : 2021 축산물 소비 실태 조사, 농촌진흥청, 2021.

□ 소고기 소비량 변화는, 20년 대비 한우고기 소비량이 증가(26.4%)했다는 가구비율이 감소(19.6%) 했다는 가구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소비량이 증가 했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수입 소고기(29.8%)가 한우(26.4%)보다 3.4%p 높게 나타남
- 수입산 소고기 소비 증가 이유로는 가격이 74.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맛(39.6%), 품질(36.2%), 원산지(23.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소고기 소비량 변화]

(%)



자료 : 2021 축산물 소비 실태 조사, 농촌진흥청, 2021.

□ 소비방법에 관한 설문에서, 소고기는 ‘가정 내 조리’가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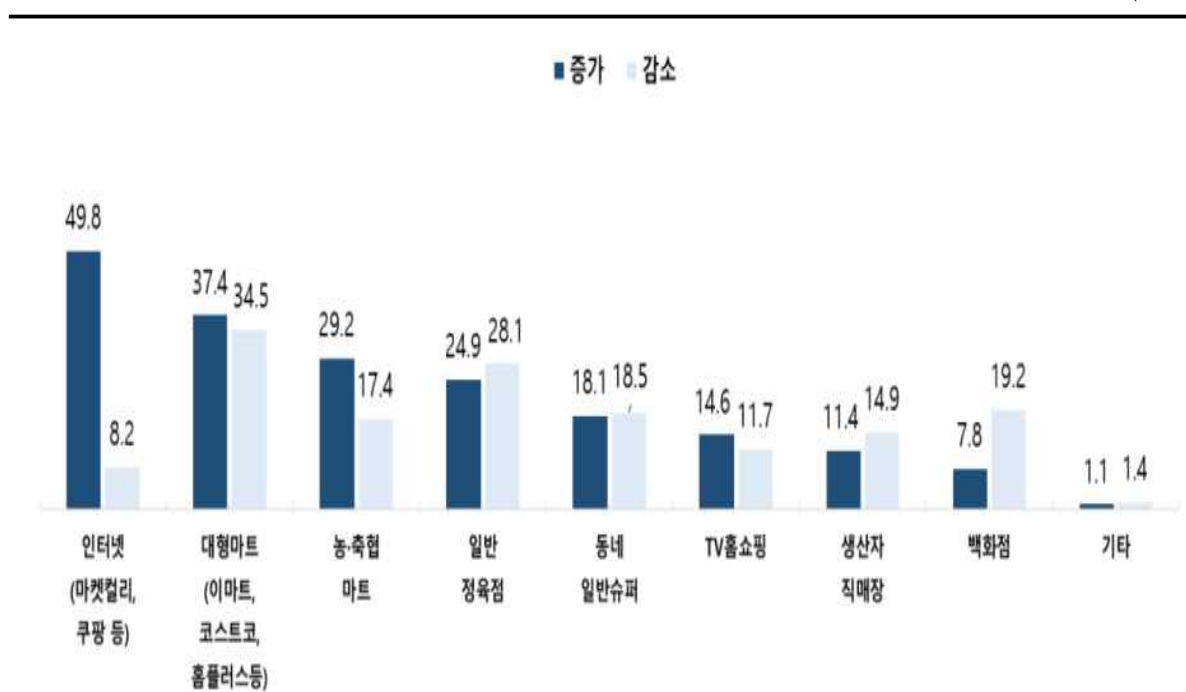
- 다음으로 ‘외식(17.9%)’, ‘가정간편식/바로요리세트(14.8%)’, ‘배달(9.9%)’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육류 구입장소 변화 여부를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18.7%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

- 구체적으로는 ‘매우 달라짐(2.2%)’, ‘약간 변했음(16.5%)’ 등 ‘변화 있음’이 18.7%였으며, 비슷하다는 응답은 50.5%로 나타남
- 인터넷 구매가 크게 증가(증가 49.8%, 감소 8.2%)했으며, 백화점 구매는 감소(증가 7.8%, 감소 19.2%)한 것으로 나타남

[육류 구입 장소 변화]

(%)



자료 : 2021 축산물 소비 실태 조사, 농촌진흥청, 2021.

자료 : 농촌진흥청 보도자료(21.12.3.)

일본, 10대 농업기술에 온실가스 반감 사료 선정

□ 일본 농림수산성은 21년 10대 농업기술 중 4위로 ‘소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반감할 수 있는 사료’를 선정

○ 온실가스 반감 사료는 정부연구기관인 ‘농연구구’와 ‘토치키현(栃木県)’이 공동으로 개발한 성과

- 농연구구(農研機構)는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의 약칭으로 농업·식량·환경에 관한 연구개발에서 성과의 사회 환원을 주 업무로 하는 국책 연구조직

○ ‘농연구구’는, 지난 10월, 아미노산을 첨가한 배합사료를 소에게 급이 하면, 우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성과를 발표

- 육질 및 증체 등에서 영향은 없었으며, 사료원료가격은 기존사료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시산되었음

- 연구 성과 이용을 원할 경우, 연구데이터를 사료회사에 제공

○ 농림수산성 정책방침 ‘녹색 식량시스템전략’에서는 축산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을 제시

- 육용우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소 트림 유래 메탄가스 다음으로, 분뇨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큰 비중을 차지

□ ‘농연구구’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을 억제한 배합 사료 ‘아미노산 밸런스 사료’를 시험 생산

○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대두박 일부를 옥수수 아미노산의 라이신(lysine)과 메티오닌(methionine)을 첨가한 것으로 대체

○ 이 사료를 토치키현(栃木県) 축산낙농연구센터에서 홀스타인 종 거세우에 급이 시험을 실시

- 우분을 퇴비화하는 기간인 64일간 배출된 온실가스는 4마리 분 339kg으로, 기존 사료를 급이했을 경우에 비해 반으로 감소
- 생산성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토치키현 오오타바라시 소재 마에다 목장에서도 시험급여를 실시
- 홀스타인 종 거세우를 실증한 결과, 증체 및 육질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소의 기호성에도 변화가 없었음

□ ‘농연기구’ 시산에 따르면, 아미노산 사료와 기존 사료의 원료가 적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마에다 목장에서는 아미노산 사료를 급이한 쇠고기를 ‘지구에 친화적인 고기’로 가격을 2할 정도 높게 설정하여 판매
- 환경을 배려하는 소비자의 관심을 얻어, 순조로운 판매가 이루어 짐
- 마에다 목장의 사이토(齋藤) 이사는 “지속가능한 축산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힘

□ ‘농연기구’는 흑모화우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할 계획

□ 참고 : 21년 일본농업 10대 기술(일본농림수산성 선정)

1위	고구마 기부병(基腐病)을 최단 1일로 검출·식별 (농연기구)
2위	2만 엔으로 가능한 하우스 내 온도감시 시스템 (농연기구)
3위	5가지 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양파 직파재배 작업기 (농연기구, JA전농, 쿠보타)
4위	소 배설물 유래 온실가스를 반감 할 수 있는 사료 (농연기구, 토치키현)
5위	과일 수확 AI 로봇, 사람과 동일 속도로 수확 (덴소, 입명관대학, 농연기구)
6위	벼 생육과 수량을 30%이상 증가시키는 기술개발 (나고야대학)
7위	지구 친화적인 소맥 신제품 개발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8위	농장의 병충해 45종을 스마트폰으로 식별 진단 (농연기구)
9위	세계 곡물수량을, 기존보다 6개월, 조기 예측 (농연기구, APEC기후센터)
10위	돼지 체중이 보이는 안경, 돼지를 보는 순간 지육중량도 표시 (미야자키 대학)

자료 : 일본농업신문 (21.10.9.), 농업협동조합신문 (22.1.5.)

일본 와규, 수출증대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하락

- 21년에 처음으로 연간 1조엔 초과가 확실해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 와규는 수출 대표품목으로 21년 1~10월에 20년 수출량을 이미 20% 이상 웃도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출 단가는 하락 경향을 보임
 - 수출 수량을 늘리는 대신 가격경쟁 조짐이 보이면서 고급 노선 일변도의 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음
 - 와규의 수출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화가 시작된 직후는 정체됐지만, ‘집콕 수요’를 배경으로 20년 6월경부터 증가하기 시작
 - 21년 1~10월의 수출량은 613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9% 상회
 - 수출금액도 417억 엔으로 89.7%가 증가,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음”(이토햄 요네히사 홀딩스 수출 추진부)
- 수출 단가는 10월 현재 6,73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785엔) 높은 수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달에 비해서는 3.7%하락했으며, 21년 최고치를 기록한 6월부터는 하락추세로 7%가 떨어짐
 - 원래 코로나 사태 이전, 와규 수요를 지탱해 온 것은, ‘인바운드(방일 외국인)’와 ‘수출’이라고 하는 일본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소비
 - ‘A5 등급’의 마블링 육처럼 와규 고급화가 국내 소비자의 절약 지향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 (일본 쇠고기 지육등급은 육질 5단계(1~5), 육량 3단계(A,B,C)로 구분하는데, ‘A5’가 최고 등급, ‘C1’이 최하 등급)
 - 코로나로 인바운드 수요가 없어지면서 수출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으며, “수출이 없으면 와규 시세가 데미지를 입는 경향이 강해졌다”(식육도매상 니이치쿠/도쿄/우에무라 코이치로 이사)
 - 이러한 배경도 있어, 일본 업체는 수출확대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최근 단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반면에 수출 단가가 내리고 있는 주요 요인은 풍부한 국내 냉동 재고에 있음

- 20년에 인바운드 수요 등이 줄어 든 것을 두고 농림수산성은 행정 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를 통해서 ‘와규고기 보관 재고 지원 긴급 대책 사업’을 시작함
 - 구체적으로는 냉동재고 보관료 등을 지원하고 이후 계획에 따라 판매하면 장려금을 지급
 - 일시적으로 일정량의 와규를 냉동 창고에 ‘격리’하는 것으로, 시장의 수급을 긴축하려는 목적이 있음
- 육가공업체 사이에서는 “일단 냉동한 후에, 수출할지, 외식용으로 팔지,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할지, 이후에 판로를 생각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음
 - 농축산업진흥기구에 따르면 21년 10월 말 현재 와규 냉동재고는 전년 같은 달보다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냉동 재고가 향하기 시작한 곳이 해외, 1~10월 냉동 쇠고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2% 늘어나, 냉동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냉장 제품 증가세를 넘어섬
 - 수출에서 차지하는 냉동품 비율은 5할을 초과했는데, 이 중에서도 등심이나 안심 등 구이용 고급 부위의 냉동품이 증가
 - 수출업체 사이에서는 양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하기 위한 가격 경쟁도 볼 수 있었음

□ 농림중금종합연구소(일본 농협계통 연구소)의 하세가와 아키오 씨의 시산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와규의 구이부위 중 수출 비율은 19년에는 1할 정도였지만, 21년은 2할로 상승

- “향후 20%가 정착되면, 산지의 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지적

- 산지나 식육 유통의 관계자로부터도 “품질이 좋은 높은 가격대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지고 있다”(와규 농가)라는 목소리도 있음
 - 예를 들면 와규의 대명사라고 하면 사시가 많이 들어간 마블링 육이지만, 수출업체 한 관계자는 “피가 떨어지는 붉은 살코기 맛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 해외에서는 수요개척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 저렴함과 간편함의 균형을 고려한 다양한 종류가 요구되고 있음
- 고급노선과는 차별화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음, 시마네현 운남시 숙풍팜은 20년 가을부터 ‘AGED-WAGYU’라고 이름 붙인 와규를 수출하고 있음
 - 송아지 출산경험이 있는 경산와규를 축산농가 등에서 구입하여 6~7개월 길러 품질을 갖추어 출하
 - 통상의 와규에 비해 저렴함과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부가가치가 있다”(이시토비 슈헤이 사장), 주로 싱가포르 등에 출하했으며, 21년에는 유럽 판매도 펼쳤음
- 해외에서는, 와규 수출업자에 대해, ‘고기 블록의 형태를 갖추고, 스테이크를 자르기만 한 상태로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등 규격관련 주문도 해마다 세밀해지고 있음
 - 공정 증가는 비용증대로 직결되지만 “가격 인상은 어렵다” (수출을 다루는 식육 도매상 담당자), 이윤은 줄어들어와도 까다로운 대응도 중요해지고 있음
 -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5조 엔으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쇠고기는 3,600억 엔으로 20년의 10배가 넘는 목표를 제시, 고급 와규를 주축으로 삼으면서 얼마나 다양하게 판매할 것인지 전략도 중요해지고 있음

자료 : 일본경제신문(21.12.15.)

세계 식량, 기상이상과 탈 탄소로 10년 만에 고가

□ 세계 식량가격 급등이 진정되지 않고 있음, 잇따른 이상기후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곡물공급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탈탄소화 진전이 수요와 생산비용을 끌어올리고 있음

○ 식량의 국제적인 가격 지수는 10년만의 높은 수준을 기록, 정정 불안이나 격차 확대 위험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2년은 식량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대응이 세계적 중요 과제가 되고 있음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산출하는 식량가격지수(14~16년=100)는 21년 11월 시점에서 134.4로 전년 동월비로 27% 상승, 2011년 6월 이래 최고가를 기록

- 곡물과 설탕의 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국제 선물가격을 보면 식용유 원료가 되는 유채 씨앗은 20년 말에 비해 7할 상승 했고, 조당(설탕)은 21%, 밀은 22% 상승

○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한 농작물이 눈에 띄고 있음

- 농업 강국인 브라질은 9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적인 폭우를 만나 옥수수 생산이 부진

- 세계 최대의 유채꽃 수출국인 캐나다는 여름 열파 영향으로, 21~2022년도 생산량이 3할 가깝게 침체될 전망

- 팜유는 주산지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사태 여파로 노동자 부족에 빠짐

□ 수요는 구조적 증가경향으로,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중국의 왕성한 사료 수요에 더해, 각국의 급속한 탈 탄소 정책도 있어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바이오 연료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벌써 미국 콩기름의 약 4할, 브라질 사탕수수(조당원료)의 5할 정도가 바이오 연료용으로 사용되어 착유 공장 증강계획도 잇따르고, 연료소비 확대를 기대하는 투기머니도 곡물시장으로 유입 중

- 탈 탄소화는 비료가격 상승을 통해 곡물 생산비용도 끌어 올림, 비료는 암모니아로 제조하는데, 암모니아 합성에는 천연가스를 사용
 - 석탄을 대신하는 화력 연료로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해, 암모니아나 비료가격에도 파급
 - 마켓·리스크·어드바이저리(MRA)는 21년 미국의 비료 비용이 전년대비 1할 이상 비싸졌다고 추정
 - 최근에는 암모니아 자체가 청정연료로 사용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곡물가격 상승은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의 정치·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

- 터키는 미국의 통화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함께 통화 가치가 떨어졌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빵 값도 올랐음
 -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시영 매점에서는, 비교적 싼 빵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긴 행렬이 생겨남
- 브라질 소비자물가지수는 21년 11월까지 1년 동안에 18년 만의 상승률을 기록
- MRA의 니이무라 대표는 “신흥국은 물가고와 통화하락이 겹쳐, 전회(14년 개시)의 테이퍼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

□ 급등을 억제하려고 인도는 투기적인 매매를 규제,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12월 20일, 국내 거래소에서 콩이나 팜유 등의 선물거래를 1년간 정지한다고 발표

- 스미토모상사 글로벌 리서치의 혼마 타카유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식량가격 급등은 정치 혼란으로 연결되어, 대처하는 자세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분석

- 동유럽 세르비아도 11월 말부터, 설탕 밀가루 같은 일부 식품에 60일간의 가격 제한조치를 시행, 11월 중순 시점의 가격을 상한으로 설정해, 위반자에게는 벌금 등을 부과함
- 자원·식량 문제 연구소의 시바타 아키오 대표는 “10년 전에는 식량 가격 급등 후에 생산이 급속 확대되어, 수요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으나. 탈탄소를 배경으로 하는 지금의 식량 급등은 길어질 것이며, 신흥국이 혼란을 겪으면서 새로운 공급 제약을 낳는다”라고 지적
 - 이미 러시아 등에서는 밀의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어 코로나로부터의 세계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요인

□ 도상국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표면화되고 있는데, 2011년 시작된 중동의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은 식량 급등이 한 원인으로 지적된바 있음

- 지금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수단처럼, 내전이나 정정 불안에 직면하는 나라에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각국 모두 인구에서 차지하는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 어려운 고용 정세와 식량가격 급등이 국민 불만으로 직결된다고 염려되고 있음
- 식량 등의 물가상승은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나 사회 계층을 압박하게 됨,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식비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
 - 다이이치 생명 경제 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임금 성장을 웃돌아 식료 가격이 상승하면 중저소득층의 부담감이 강해져, 생활 격차가 퍼진다”라고 지적

□ 선진국도 무관하지는 않은데, 일본에서는 소비 지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식비비율(2인 이상 세대)이 10월 시점에서 28%로 코로나 전인 19년 10월 이후 0.5%포인트 정도 높아짐

- 저성장이 계속 되는 일본은 임금의 성장도 둔하고, 식품의 가격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한층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경제 격차의 동향을 정리한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상위 0.01%의 부유층의 자산이 세계 전체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년 시점에서 11%에 이름
- 인플레이의 한 원인인 세계적인 금융완화와 함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상승, 부유층은 윤택해지는 한편, 자산을 가지지 않는 계층이 식량가격 급등의 무거운 짐을 지는 구도가 선명해지고 있음
- 고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려고 미 연방준비 이사회(FRB)는 금융 긴축 노선으로 돌아섰고 신흥국에서도 금리인상이 잇따르고 있음
- 향후 수요 확대를 수반하지 않는 ‘나쁜 물가 상승’이 얹혀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과 어떻게 마주볼지는 계속 세계경제에 있어서 무거운 테마가 되고 있음
- 시사점 : 사료곡물 등을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우산업으로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지속은 한우생산비 급등 요인으로 작용, 농가경영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높음, 농가의 생산비 절감 노력과 함께, 정부차원의 농가경영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함

자료 : 일본경제신문 (21.12.31.)